

# 새로운 도전

## - 가족문화지도사

이 정 연(목포대 교수)

### 1. 들어가는 말

문화는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Moynihan은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종인 역, 2006:10)라고 역설한다. 과거 공산권의 몰락 이후 이데올로기의 분쟁이 종식되고, 소위 “문명의 충돌”이 쟁점화 되었지만, 현재는 문화간 차이를 존중하고 소통을 통한 상호교류, 상호의존 등을 지구촌의 새로운 아젠다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상호의존의 정신에 바탕을 둔 문명간 대화를 힘써 추진할 때”라고 말한 Tu Wei-Ming(2007:402, 재인용)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제 문화가 국가경영의 대상이 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가 수립한 <2015 문화도시 기본계획>에서는 ‘문화공간’,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복지’, ‘문화시민’, ‘문화시정’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구성한 바 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화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소위 문화마케팅으로서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품이 아닌 문화를 파는 문화기업들이 늘고 있다. 예술 또한 상업주의, 대중문화 등과 손을 잡고 대중에게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예전의 소비자들에 비해 교육 수준도 높고 주체의식이 강하고 자기주장도 더 뚜렷하며(최혜경, 2005:35),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욕구 또한 강하다. 소비자가 단순한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 프로슈머로 나아가면서, 체험학습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과 예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작품과 상품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움의 미학을 추구하면서 전형적인 문화예술의 장르 외에 팝아트, 디지털 아트 등 새로운 장르가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창의적인 가족문화를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생활과학의 중요한 학문 영역이며 실천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이 역사적인 전통문화와 예술문화에 한정되었다면, 앞으로는 공간문화나 생활문화 쪽으로 더 확장된다(나도삼·백승만, 2006:20)고 볼 때, 생활과학이 생활문화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작업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그동안,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전통문화를 전승,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마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예: 정영숙, 1991), 전통문화나 문화원형을 현대 사회에 맞게 교육적인 서비스로 연결하는 노력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현재까지 가족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1) 가족정책 전문가들이 가족문화의 범위를 여가문화로 축소해서 인식하는 점, 2) 가족문화가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한 점, 3) 일반 가정을 주로 문화복지, 문화교육의 수혜자로만 바라보고 문화창조나 문화산업의 주체로 성장·발전시키는 비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활과학이 그동안의 세분화된 학문적 성취 못지않게 가정과 기업, 정부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서 가족문화지도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본론

### 1)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문화주택 등), 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품의 요소(문화인·문화재·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

한국어 사전편찬회 편(1986)에서는 문화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물질적인 문명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을 말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학자인 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적, 정신적, 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 과정’, 둘째,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한 생활양식’, 셋째,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으로 나는 것이다(김민주 외, 2006:16). 보편적인 정의로는 이중 두 번째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본다.

### 2) 가족문화의 개념 및 범위

가족문화는 가족이 공유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다. 학문적으로는 가족학, 생활과학, 그리고 문화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가족학분야에서는 가족관계학, 가족상담학, 가족생활교육,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의식주 관련학문, 그리고 문화학 분야에서는 문화인류학, 문화사회학, 비교문화학, 대중 문화, 예술 등이 직접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문화의 범위를 가족사랑, 가족의 힘을 강화하는 가족단위의 창의적인

생활문화로 한정하며, 가족문화의 수준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문화지도사란 가족문화를 기획하고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회교육 전문가이다.

문화는 단순히 여가 활동의 차원이 아닌 정서를 순화하는 심리치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족문화 활동은 개인과 가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관계적 기능의 회복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역기능적이거나 기능이 약화된 가족체계를 정상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생활문화

생활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 또는 가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특성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이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원리, 규범 또는 규칙을 말한다(박명희 외, 2003:10).

생활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특정 사회의 변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시대별로 특수성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 보편적인 가족가치, 즉, 구성원간에 신뢰하고 책임을 나누며, 심리적 유대를 지속하는 일은 여전히 불변의 핵심 가치이다. 김혜영(2006)은 ‘가족이데올로기’, ‘가족교섭문화’, ‘가족소비문화’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가족문화의 일반적 성격과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가족간의 상호작용 양식이나 가족소비, 가족여가 등 경험적·물질적 영역에서는 계급별 성격이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문화의 심층적 구조로 상정되는 가족가치 및 윤리의 영역에서는 계급적 분화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한국 가족이 외형상의 서구화와는 달리 어느 계층이든 보수적인 가족중심주의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초혼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등 어떠한 가정이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부모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생활문화에 있어서도 보편성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맞게 적용하는 융통성을 갖는 균형이 필요하다.

생활문화는 전통문화로부터 출발하여 시대적 양상에 맞게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생활문화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주기가 짧은 유행, 트렌드, 열풍(예: 웰빙문화)이 있는 가하면, 보다 지속성을 지니는 문화풍토(예: 장례문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웰빙 열풍은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의도와는 달리, 대중매체와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휩싸여 전 사업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지영, 2005; 전영옥, 2005). 정신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로하스의 개념보다는 개인적 웰빙의 차원에서 고급화된 제품의 구매로 확산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주창윤(2004)의 표현 그대로 “나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니다.”

생활문화는 개인과 가정의 생활양식일 뿐 아니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환경을 조성해가는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연구(나도삼·백승만, 2006:200-201)에 의하면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대한 문화시설

보다는 주민의 욕구 및 특성에 맞는 환경으로서 ‘문화놀이터와 같은 작은 쉼터’, ‘공원과 같은 여가 휴식공간’,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생활문화공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가족문화지도사가 다루는 영역은 가족단위의 생활문화의 영역으로서, 전통문화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현대적으로 응용, 적용하는 양식을 취하며,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가족문화 운동, 문화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가는 의식화 교육도 포함한다.

#### 4)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보통 대중매체라고 일컫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음반, 만화, 복제 회화, 엽간판 문고류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통속적이고 가벼운 오락물이나 상업예술”(박성봉, 1997:342)을 일컫는다.

현대의 대중문화는 이전 단계에서 볼 수 있던 일부 엘리트만의 고급문화와, 기층(基層)에 있는 토착적인 민속문화와의 사이에 나타난 중간문화를 이르기에도 한다. 종래 문화의 향수(享受)는 지극히 한정된 일부 계급·계층 사이에서 고급문화화 하였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교육보급의 확대에 따른 문화향수 능력의 향상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문화의 자유스러운 향수범위를 확대하여 대중문화 성립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윌렌스키와 스윈지우드가 언급하였듯이, 대중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 부, 교육 수준, 직업 등의 요인들이 문화선택의 기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봉, 1997; 344). 대중문화는 서민 뿐 아니라, 고급적인 예술적인 취향을 지닌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감을 느끼는 미학과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이 향유하는 예술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일반인들이 대중문화의 소비자인 동시에 스스로 참여하고 생산하는 문화생산자의 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방향도 소수의 문화권력자나 대규모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즉시적으로 전달되고 소비되며 진화해갈 것으로 예측된다.

#### 5) 창의적인 가족문화의 특징

본고에서는 가족문화지도사가 다루는 가족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창의적인 가족문화는 가족의 사랑과 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표현예술 활동을 포괄한다. 가족문화 활동이 전반적인 문화예술 장르를 모두 다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기법의 측면만을 언급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일한 기법이 교육, 문화, 예술,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예: 콜라주). 기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철학과 정체성이며, 목적이 다르면 동일한 기법이라도 다른 효과가 산출된다는 점이다.

둘째, 창의적인 가족문화는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어느 지역이건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상존하며 전통적인 유산을 폐기하고 완전히 대체한 근대화는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통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는 창작의 출발점에서부터 필요한 선수과제이다. 최근 성공한 문화콘텐츠의 사례를 들자면 난타를 빼놓을 수 없는데, PMC 프로덕션 송승환 대표이사는 “전통 사물놀이에 어렸을 때 부엌에서 들던 어머니의 도마 소리를 접목시켜 만든 것인 난타”라고 설명한다(여성신문, 2007.9.21). 가족문화 활동은 전통과 현대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 속에 스며있는 문화적 원형을 소재로 하여 현대 가족에게 흥미와 활기를 주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셋째, 창의적인 가족문화는 각 요소간에 유기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가족문화 활동은 단순히 여러 활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가족학의 전반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상담과 교육의 측면에서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증가시키는 개인활동과 집단활동을 유기적으로 선택, 조합하여 구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적으로 집단의 역동성을 살리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여러 여가활동을 배열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 6) 가족문화지도사 (2급) 과정의 내용

본 연구자가 개발하고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가족문화지도사(2급) 양성과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족문화지도사 (2급)의 교육내용

범 위	목 표	세부내용
제1부 : 가족문화의 이해	한국의 가족과 가족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강화를 위한 가족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제1장. 새로운 도전: 가족문화지도사 제2장. 성숙한 자아와 건강가족 제3장. 우리는 패밀리 리더 제4장.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하여 제5장. 가족문화지도의 기본 원리
제2부 : 가족문화의 실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가족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다.	제6장. 창의적인 생활문화 제7장. 무엇이든 자원이다 제8장. 감성언어 제9장. 가족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제 제10장. 청소년을 위한 세트 스타일링
제3부 : 현대 대중문화의 트렌드	현대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문화 아이টে을 개발한다.	제11장.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제12장. 공공미술 맛보기 제13장. 문화마케팅 제14장. 몸詩와 신체예술 제15장. 푸드아트 테라피로의 초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의 요보호 대상의 잔여적, 사후 문제해결 중심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이승미, 2007:48).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

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NN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그 밖의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제28조 제2항)등을 포함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족단위 활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족문화지도사(2급) 양성과정의 교육활동

단위사업명	구체적인 활동의 예
가족여가문화	몸詩와 신체활동, 가족퍼포먼스, 에듀투어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건강한 가족관계, 화해 카드, 포토에세이, 아빠 힘내세요
가족단위 자원봉사 문화확산	푸드아트테라피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푸드아트테라피, 청소년을 위한 세트 스타일링
합리적 소비문화	무엇이든 자원이다, 폐품을 이용한 설치미술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공공미술 문화마케팅, 가족문화기획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감성사진, 스토리텔링, 생활공예
건전한 가정의례	가족생활주기별 가족이벤트기획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사업	협회를 통한 활동, 자료집 발간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중심의 세대통합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각 단위사업별 가족문화 활동을 전개해가는 데 유용하면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가족봉사단 활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문화복지 차원의 활동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7) 가족문화지도사의 역할

첫째, 가족문화지도사는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이다.

김문환(1999:95)에 의하면 문화교육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식에의 안내와 문화유산의 감상, 그리고 현대생활로의 안내, 2. 문화가 확산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친숙화, 3. 문화유산들과 현대문화 간의 불가해한 연결과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 4. 미적, 예술적 교육 5. 윤리적 시민적 가치들의 훈련, 6. 매체교육 그리고 7. 간문화적(intercultural)/다문화적 교육.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족문화지도사는 가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생활문화의 경향을 전달하며, 나아가 가족과 생활문화에 관한 가치관 형성과 비평 능력을 길러주는 안내자이다.

둘째, 가족문화지도사는 가족문화를 기획하는 전문가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 평생학습 사회로 진입하면서 에듀테인먼트의 영역이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에듀테인먼트 영역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인성교육이며, 문화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핵심 가치이다. 가족문화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반 경영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콘텐츠개발, 자원마련, 홍보마케팅, 교육

및 보급,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가족문화지도사는 가족정책 제안에서부터 가족축제나 이벤트, 관광 등 다양한 가족단위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상품화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가족문화지도사는 가족문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가이다.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우수하면서도 특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겸비되어야 한다. 집단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각적 자료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음에도(송창식, 2002; 이기숙, 2005) 생활문화 분야에서 이에 대한 교구나 기법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연(2005)은 가족강화를 위한 표현예술 기법으로서, 포토에세이, 드로잉, 네컷 만화, 생활공예, 설치미술,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등의 실재를 소개한 바 있다. 디지털 시대에 알맞게 가족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멀티미디어 기법을 적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가족문화지도사는 가족문화와 관련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하는 행정 전문가이다. 가족문화지도사는 창의적인 가족문화를 개발하는 일 못지않게, 행정적으로 공동협력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가족문화지도사는 지역사회의 다른 유관 기관들과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함께 일하는 지역개발 전문가이다.

### 3. 가족문화지도사의 전망과 정책적 제언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이 새롭게 창출되고 사라진다. 최혜경(2005)이 시사하였듯이, 앞으로는 지역 사회 주민이 대학의 일차적 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나 성인교육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

가족문화지도사는 생활과학 분야에서 직업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가족문화 지도사가 진출할 영역은 개별 가정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병원, 종교기관, 비영리기관 등 다양하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가족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교육과 상담, 예술의 기능을 갖춘 통합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활동영역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문화와 가족문화지도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협회, 기업, 정부, 센터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가능하다. 영역별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과학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는 가족문화에 관한 이론적 체계확립과 교과목 개발, 그리고 가족문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학 분야에서 교육과 상담에 역점을 두는 반면, 가족문화의 영역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문화관련 교과목 개설과 가족문화 전문가 양성 및 배치는 생활과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다(계선자 외, 2007:55, 이승미, 2007:51). 그리고 학회와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의 조직적 관리와 대외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가족관련 센터(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을 가족문화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영역은 크게 상담, 교육, 문화, 그리고 가족지

원사업으로 나뉘어진다. 교육, 상담, 그리고 지원사업 영역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와 호응도가 낮은 편이다.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놀이와 교육, 예술, 문화 그리고 테라피간에 엄격히 구분을 지어 활동하던 방식을 바꿀 때이다. 기존의 개별대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의 다양한 가정생활 문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이승미 외, 2005: 1), 모든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각 회기마다 가족문화 활동을 첨가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교육과 상담, 치유 기능을 갖춘 가족 문화 프로그램[예: 이정연(2004), 가족이미지 아카데미 <http://cafe.daum.net/Fam7979>]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가족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가정정책 발전 방안의 하나로 ‘모든 가정과 함께 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이승미 외, 2005:1, 진미정 외 4인, 2007: 28), 현 정부의 가정정책을 평가해볼 때, 양적, 질적으로 부실함이 드러났다. 다양한 가정 지원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주무부서와의 적절한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적, 물적 손실이 야기되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진미정 외 4인, 2007:128)이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규모상으로도 여성정책이나 보육정책에 비해 가정정책이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정책 중에서도 양성평등 사업에 비해 가족문화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어, 행정상의 공백이 우려된다. 또한,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는 요보호 가정의 잔여적 가정정책을 우선적으로 취하여 가족문화의 경우, 소외가족 문화체험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가족문화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계 부처간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족문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변화순(2005:24)은 가족문화의 주요사업으로서, 가족단위 여가문화 형성과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제도 마련을 제시한 바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을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06년12월 31일 현재,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문화관광부, 2007)

전국에 1,329개소이며,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 2항과 관련하여 지역문화복지시설로서는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지역생활권내에 조성된 이러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들이 시설면에서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비디오감상실, 인터넷부스, A/V 부스, CD 부스 등을 갖추고 있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문화체험이나 문화창작 프로그램은 종이접기, 풍선아트, 리본아트 등으로 단조로운 편이고 가족단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족문화 활동을 허용하고 앞으로 가족문화활동에 필요한 문화환경(가족문화원, 가족문화의 거리, 가족단위 스튜디오, 작업장, 교육장, 옥외공간, 전시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



#### 4. 맺는 말

홍공숙(2007)은 인간생태학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과과목개발, 지역사회의 서비스, 그리고 리더십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와 기업, 비영리기관,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우수한 리더를 양성하여 가족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학문 분야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다.

가족문화사업은 무엇보다도 가족단위 참여율을 높이는 활동이면서,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활동이다. 가족문화의 개발과 보급에 가장 관련 있는 생활과학은 학문적인 성과 외에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집단적인 노력”을 할 때이다.

어느 영역이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가족문화지도사는 기존의 생활과학의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혁신 분야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계선자·김연화·강기정·이미선(2007).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5-58.
-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주 외(2006). 킬덕시대의 문화마케팅. 서울문화재단.
- 김상철·김정수 역(2007). 킬처 코드. 리더스북.
- 김연순(2007). 문화에서 바라 본 여가정책 방향. 제1차 여가정책포럼 자료집.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김용근(2006). 서울 시민의 여가생활 변천. 제10장.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김문식 외. 서울 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공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혜영(1996).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도삼·백승만(2006).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정연 2006-R-45.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68집. 집문당.
- 박명희 외(2003). 한국의 생활문화. 교문사.
- 박성봉(1997). 멋과 대중문화. 최정호 편. 멋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338-355.
- 박재환(2004).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한울 아카데미.
- 변화순(2005). 한국의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1.
- 서울시(2005). 2015 서울 문화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 송창식(2002). 새로운 민주시민교육방법. 백산서당.
- 오병남(2006).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기숙(2005). 가족강화를 위한 ‘집단활동’의 적용: ‘재미나는 가족교육’. 2005년 한국가족관계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7-71.
- 이승미(2007). 한국 가정의 현황분석과 실천 현장을 통한 생활과학의 과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 선포. 대한가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통합 포럼 자료집. 42-52.
- 이승미 · 고선주 · 성미애 · 진미정(2005). 중앙, 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역할과 체계 구축.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정연(2005). 가족강화를 위한 표현예술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7-53.
- 이종인 역(2006).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 이지영(2005). 한국인의 웰빙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영옥(2005). 웰빙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정영숙(1991).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보고서 90-4.
- 주창윤(2004). 나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 아니다. 신문과 방송. 4월호.
- 진미정 · 이완정 · 송혜림 · 서지원 · 박정윤(2007).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가정정책 발전방안.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자료집.
- 최인철 역(2006). 생각의 지도. 김영사.
- 최혜경(2005). 가족강화를 위한 시장 모색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35-41.
- 투에이밍(2007). 다중 모니터: 동아시아 모니터에 대한 예비적 고찰. 제19장. 390-402. 이종인 역 (2006).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 한국어 사전편찬회 편(1986). 한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 홍공숙(2007). Human Ecology: Celebrating the Past and Strengthening the Future. 대한가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통합 포럼 자료집. 19-26.
- 여성신문. 2007.9.21. 15쪽.
- <http://cafe.daum.net/Fam7979>.
-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administrative/statistics\\_view.jsp](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administrative/statistics_view.jsp)
- EnCyber &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45509>.

## 새로운 도전

### - 가족문화지도사

김 연 화(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건강한 가족문화는 건강한 사회적 자본으로 건강한 사회문화와 국가문화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경제구조와 사회조직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양식,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가족관계, 인가관계 및 생활방식등도 새로운 방식을 변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질문화의 변동과 가족원의 가치나 가정생활문화간의 지체현상이나 부모와 자녀간 문화단절 등으로 세대간 가족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계선자·박미석·김연화, 2005).<sup>1)</sup>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재현이이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가족에듀투어를 겸한 관광사업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방송 및 서적,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도 가족을 주제로 한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론과학이면서 실천학문인 가정학에서는 이제 개별가족과 개인의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만이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 교육, 문화사업,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등 기타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이나 상담분야는 대학에서의 교재, 방송매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종사자 및 전문가 양성교육 등이 있어 각 센터나 현장 및 예비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사업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가족문화사업 담당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법에 근거하여 교육상담 문화를 통합적으로 하며 가족의 정서순화, 가족간 친밀감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제공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 가족문화지도사”의 내용은 현장전문가와 전공생의 욕구와 사회적 측면 및 가정학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정학 연구, 상담, 가족생활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바탕으로 가족문화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정학의 실천적 분야를 제공한 점은 전공측면과 문화산업, 가족여가문화 정책개발 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토론에서는 발제된 원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토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하며, 앞으로

1) 계선자·박미석·김연화(2005), 가정생활문화표준교과목 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가족자우너경영학학의 표준교과목 개발 및 워크샵 자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5년 10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22.

가족여가문화 향상 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생활과학이 학문적 성취 못지않게 가정과 기업, 정부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시기가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며 가족문화지도사라는 안을 제안 한 점은 학문적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창의적인 가족문화의 특성을 가족의 사랑과 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활동이며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문화활동은 가족학의 전반적인 이행에 바탕을 두고 상 담과 교육의 측면에서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 강화를 위한 개인과 집단활동을 유기적으로 선택, 조합하여 구성한 것이라는 점에는 동감한다.

둘째, 가족문화지도사 2급과정의 내용에서 범위를 가족문화이해, 실제, 현대대중문화의 트렌드로 범위를 나누고 목표 및 세부내용을 살펴본 부분에서 다만 조금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하였으면 하는 점은 가족의 이해 부분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다양한 문화의 가족, 공공가족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역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셋째, 연구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족문화지도사 2급 양성과정의 교육활동을 구성하여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정학에서 ‘자원은 인적물적자원이 있는 데 모든 것은 자원이다’ 라는 전제하에 가족문화 활동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위사업명과 구체적 활동의 예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더 많은 구체적인 활동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전공자와 현장실천가들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또한 내용에서 더욱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은 건전한 가정의례에서 가족생활주기별 가족 이벤트 기획도 참여자 가족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이러한 기획도 고려하여 실제 사업장이라면 전통적인 가정의례와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사업 영역의 경우 가족단위 행사시 가족문화체험코너 운영이나 가족축제 등에서 가족문화활동 체험코너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및 가족단위의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전수 등도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가족거북이 마라톤 및 가족문화체험. 아빠와 놀자! 등산 및 숲문화체험, 가족문화지도사 작품 전시회 및 가족문화체험코너 운영, 서울 가족축제에서 국수액자 및 밀가루 반죽이용 가족 놀이 프로그램 체험코너 운영, 문화체험 활동 및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한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가족문화지도사의 역할과 전망 및 정책적 제안에는 토론자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수행을 잘 하도록 가족문화전문가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후속 활동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전문적으로 할 전문가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여섯째, 가족문화지도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급과정 양성교육과 전시회를 통한 수료증 교부보다는 보다 시수도 늘어나야 하며, 가족관련 이론 및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내용이 더욱 보강되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과 가족문화를 때, 장소,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함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가정사 및 가족복지사와 같이 대학에서의 전공교과목 이수 등과 관련한 사항 등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민관학연계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가족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

보급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는 교육, 상담, 문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세대통합 및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가정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양성을 하였으면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등 가족문화관련 부처에서는 가족문화기반 시설 및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과 정책개발 및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시적 소비적, 수동적이면 비생산적인 여가방식에서 생산적, 창의적, 교육과 상담 및 문화체험을 통한 가족 중심 수혜자 중심의 여가문화조성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앞서 제시한 연구자의 가족문화지도사 안이 학계와 정부에서도 수렴하도록 많은 연구자와 현장 실무가, 정책제안자들이 이론적 보완과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사회문화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및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